

지역 매 아리

김제여성새일센터,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자 공모

김제여성새일하기센터(센터장 신미란)에서는 이달 31일까지 2019년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대상업체 2개소를 공모모집한다고 밝혔다.

김제여성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체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 받은 기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관공서 및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등 여성 전용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여성전용시설에 필요한 수납장, 사물함을 구입할 수 있으며, 1개 업체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19년도부터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구입도 가능하다. 김제여성새일센터에서는 접수기간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도 2개 업체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어린이집, 안전 먹거리 강화
회계실무·공공급식 이용 교육 실시

완주군이 어린이집의 안전한 먹거리 확산을 위해 회계실무와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교육을 실시했다.

완주군은 완주군 중앙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난 18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80여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및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확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유아를 위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이종근 완주군고용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과장의 설명으로 진행된 로컬푸드 공공급식 이용 확대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제철 먹거리를 어린이집에 작거래로 공급하는 것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

어린이집은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로컬푸드를 급식에 사용할 경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날 교육을 통해 어린이집의 추가 신청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조규대 크로바 재무회계컨설팅 연구소 소장의 강의로 회계실무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회계규칙 변경내용, 예산서 작성 및 결산절차, 지출방법 등을 주제로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실무 사례 위주의 강의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공정함 잃지 않고 시정 운영”

공격적 기업유치·김제형 일자리 늘리기 등
박준배 김제시장, 의회서 올해 시정설계 설명

박준배 김제시장은 21일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 시정설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박준배 시장은 시정설계 설명에 앞서 지평선축제의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 선정과 제2회 종자박람회 성공개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38개 공모사업 선정, 지난해 보다 25%가 증가한 국가예산 7,031억원 확보, 33개 부문 수상을 통한 시 경쟁력 제고 등 2018년도 주요성과를 나열하고 성원해준 시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시의원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이와 2019년도 시정방향은 “다 함께 열어가게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격적인 기업유치와 함께 마을환경 지킴이제, 경로당 급식도우미 확대 운영, 꽃길 가꾸기 등 소모적인 일자리를 농산물 공동생산과 같은 생산적인 일자리로 대체하는 등 농촌환경 개선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김제형 일자리’를 적극 늘려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새만금 경제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제협력유지 100만평에 지식약적 복합단지 개발관련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고 김제를 첨단농업의

메카로 만들고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2019 농업기계 박람회 및 국제종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향유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과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구현, 제2 지평선축제의 성공 개최를 통한 고품격 글로벌 문화관광 선도 등 7대 핵심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올 한해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쌓아올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매사에 공정함을 잃지 않고 시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함게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지난 19일 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대학교 시청각실에서 중국어 캠프가 열렸다.

완주군, 중국어 합숙 캠프 성료

초·중학생 60명 대상 ... HSK 위주의 정규수업 진행

완주군 학생들의 중국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중국어캠프가 성료됐다.

완주군은 인재육성재단이 주최하고 (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한 완주군 중국어캠프 수료식이 지난 19일 학생과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석대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어캠프에는 관내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6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난 1월 2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간 우석대학교에서 원어민교사와 합숙을 하며 겨울방학동

안 중국어 실력을 쌓았다. 중국어캠프는 학생들의 수준별로 5개반으로 편성해 HSK(한어능력시험) 위주의 정규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중국어문화대회, 퀴즈대회, 신문만들기, 중국음식만들기 등 중국 문화를 이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캠프에 참여한 대덕초등학교 5학년 김조은 학생은 “캠프가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끝나서 아쉽다”며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

도 나눠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재단 이사장인 박성일 완주군수는 “올 겨울 특감이 유행한 가운데 건강하게 캠프를 마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중국문화를 이해하고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은 지역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름에는 영어캠프, 겨울에는 중국어캠프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김주택의원 “미세먼지 저감 촉구·대책 제시”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 박두기 의원, 김주택 의원은 21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 번째 발언에 나선 오상민 의원은 농업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변모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조성된 지평선산업단지가 지난해 우수기업의 투자를 이끌고 2,068명의 고용창출을 이뤄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입주기업 직원 대부분이 김제에 거주하지 않아 고용창출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가 거의 없으며 현재의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주장은 더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택 의원은 “이러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아닌 기업유치라는 수단적 요소에만 집착한 결과로 산단 조성의 목적이 기업 유치를 위한 것인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분명하게 재인식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산업단지 조성의 당초 목적인 고용창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를 유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두기 의원은 전북권 공황이 새만금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황부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백산면, 공덕면 일대의 국토교통부 소관 공황부지를 민간유용연구 제2단지로 조성하여 종자관련 박물관과 종자 가공처리센터를 설립하는 등 종자산업 기반지역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종자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공황부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승진문제와 관련 김제시는 도내 시단위에서 유일하게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없는 지자체라고 지적하고 소수직렬을 배려하지 않는 불균형 인사는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려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하며 향후에는 조직의 성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주택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도내에서 김제시의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20회)가 익산시(29회), 전주시(26회) 다음으로 많다는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인용하며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김제시는 더 이상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시민들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관련 개선책으로 신뢰성 높은 예·경보체계 구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인상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인프라 조성, 김제시 찌푸리 땅과 유류 부지를 이용한 녹지섬집 숲 및 생활환경 숲 조성 등 녹지 인프라 확대, 입산부·노인·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시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문과 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7개 품목 확대 시행

완주군이 농업인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월급제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완주군은 농가들의 농업 소득이 수확기 이후에 편중됨에 따라 생활안정과 계획 경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7개 품목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에서는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

했으며, 대상품목으로는 벼(친환경벼), 마늘, 양파, 감, 블루베리, 한옥유가 있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해 대상 품목을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0농가에 15억5000만원의 월급을 농업인에게 지급했다.

올해는 마늘, 양파, 한옥유 등 45농가가 6억의 월급을 신청한 상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참여농협 추가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